

북스

어린이 책꽂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자장면=베스트셀러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이 그려낸 추운 겨울, 마음을 따듯하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눈송이가 소복소복 쌓이는 추운 겨울 저녁, 자장면 집으로 들어선 세 아이들이 주인 아주머니의 작은 배려로 상처 받지 않고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이다. (주니어랜덤·9800원)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숨겨진 제2회 웅진주니어 문학상 수상작. 학교와 친구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시월이, 개학을 앞두고 밀린 방학숙제로 골머리를 앓는 시월이에게 로보트 선생님이 나타나고 그렇게 전학을 간 학교는 시월이가 다니던 학교와 모든 것이 정반대로 움직이는데... (웅진주니어·9000원)



▲하늘이 레이스처럼 빛나는 밤에=엘리너 렌더 호위츠의 그래픽, 달빛과 별빛만이 가득한 아름다운 밤에는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호기심을 문학작 상상력으로 아름답게 표현했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같은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문학과학사·1만원)



▲장화 벗은 고양이=거꾸로 읽는 '장화 신은 고양이', 고양이는 장화를 벗었던지면서 평범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의 착한 고양이로 돌아온다. 잘못된 주제 의식을 따르는 기발한 반전으로, 때로는 시점을 바꾼 전개로 자연스럽게 바르잡아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름다운사람들·9800원)



▲신나는 썰매타기=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호철 선생님이 어릴 적 추억을 담은 동화다. 신나게 썰매를 타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과 재미있는 글이 썰매 타기라는 옛 놀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썰매를 타며 즐기는 놀이를 재미있게 설명해 준다. (고인돌·1만3000원)



▲이렇게 깊은 뜻이!-유물 속 생활 속 뜻 찾기=박물관의 유물을 보고도 몰랐던 조상의 삶과 생활에 대해 설명한다. 국수는 왜 잔치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갈까?, 바퀴가 복을 부르는 동물이냐? 등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있는지, 유물속에는 어떤 상징들이 숨어있지를 들여다본다. (길벗어린이·1만원)



▲은혜 깊은 꿩 이야기=자신의 몸을 던져 은혜를 갚은 꿩 이야기로 치약산에 내려오는 전설을 바탕으로 했다. 향토사학자인 작가 이상희씨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구성했으며 선비의 은혜를 갚고 죽은 꿩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강원도 원주 '치약산'의 지명에 얽힌 이야기도 상세하게 들려준다. (한림출판사·1만2000원)

▲초코칩 쿠키, 인형=신에 동화작가 이숙현의 첫 동화집. 작가가 일간 '어린이와 문학'에 실었던 동화 네 편과 미발표작 두 편을 모아 총 6편을 엮었다. 수록작 모두 평범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심리와 불안, 고민을 실감나게 그려냈다. (창비·8500원)

미래 재앙 예감하는 소녀의 모험

카산드라의 거울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개미', '늑대', '신' 등의 작품으로 한국인에게 특히 사랑받은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장편소설 '카산드라의 거울(전 2권)'이 번역·출간돼 나왔다.

이번 작품은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이 한국인이라는 점과 베르베르의 기존 작품과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출간 전부터 독자들의 관심을 모아 왔다. 자신을 위험한 편집증 환자로 여기며 등장하는 한국인은 탈북한 컴퓨터 천재 강예민. 여덟 살에 난민으로 표류하다 부모를 잃고 홀로 구호

단체에 구조돼 프랑스에서 자란 인물이다. 컴퓨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중국 중앙은행 시스템에 들어가는 등 세상을 향한 위험한 복수를 하다 쫓기면서 결국 노숙자가 된 인물이다.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여주인공 17세 소녀 카산드라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진 트로이의 예언자 카산드라를 닮은 운명의 소유자다. 그녀는 꿈에서 폭탄 테러 사건을 내다보고, '5초 후 사망 확률'을 예언하는 시계를 가진 신비로운 인물이지만 자신의 과거와 가족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미래를 예언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저주를 받은 고대의 카산드라처럼, 사람들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을 위험한 편집증 환자로 여기며 등장하는 한국인은 탈북한 컴퓨터 천재 강예민. 여덟 살에 난민으로 표류하다 부모를 잃고 홀로 구호

하게 될 네 명의 노숙자를 만난다. 왕년의 외인부대원 오를랑도, 전직 예로 영화배우 에스메랄다, 한때의 아프리카 흑인 주술사 페트라, 그리고 한국인인 컴퓨터 천재 김예민이 그들이다. 그들은 역시 세상이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카산드라'들이다.

소설은 카산드라가 이들에게 인정받아 고약한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동거하면서 미래의 재앙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하던 자신의 과거를 찾아가기 위한 여정을 담았다. 그들이 허위식으로 가득 찬 현실세계와 맞서 싸우는 과정이 이야기의 골격을 이룬다.

사실적 공간 설정, 적나라한 묘사, 어느 때보다도 긴박하고 강렬한 '액션'을 담아 '현실 사회'의 이슈들에 직접 다가서고 있다는 점은 예전과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베르베르'를 느끼게 한다.

베르베르는 '쓰레기 하치장'을 주요한 무대의 하나로 삼아 현대 문명을 은유하고, 그 속에 '현실의 악취'까지 고스란히 담아냈다. 거친 욕설과 엽기적인 식생활 등 지극히 사실적으로 그려낸 노숙자들의 행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던진다. 파리에 살며는 초고층 빌딩 몽파르나스 타워, 몽수리 배수구, 고대에 건설된 지하 터널 등 실제의 공간을 도입해 작품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환상성에 주로 기대던 이전 작품과 크게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서도 인물들이 겪는 극적 상황들은 베르베르다운 상상력의 기발함이 넘친다. 특히 '5초 후 사망 확률'을 예언하는 시계는 베르베르다운 상상력이 담긴 소품이다. 이 시계는 카산드라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작품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한국어판에 실린 일러스트레이터가 만화가인 홍작가의 독특한 구별되는 '새로운 베르베르'를 느끼게 한다.



장편소설 '카산드라의 거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속에서 시간의 경과와 다양한 초점을 담은 새로운 시도로 작품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

(열린책들·각권 1만1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

민음 지식의 정원-서양사편

정기문 외 지음



한국인의 관점에서 서양사를 정리한 인문 교양 시리즈 '민음 지식의 정원' 서양사편 1차 본 4권이 출간됐다. 총론 격인 '역사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로마는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가?', '중세 유럽은 암흑시대였는가?', '대항해시대의 마지막 승자는 누구인가?'

서유럽 서양사학과 출신의 교수들로 구성된 저자들은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던 서양의 연구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자체적으로 해석한 서양사를 표방했다.

예를들어 서양사 연구의 고전으로 꼽히는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를 비롯한 관련 책들이 '로마는 왜 멸망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시리즈는 '로마는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가?'라고 또 묻는다.

또한 '중세 암흑기'라는 일상적 표현에 '중세 유럽은 암흑시대였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중세사회가 봉건제도와 교회의 속박으로 학문과 예술이 쇠퇴했던, 말 그대로 '암흑시대'였는지 비교적으로 살피고 있다.

시리즈의 나머지 권(총 12권 계획)은 '지중해 무역은 사치품 무역이었을까?', '르네상스는 고대의 부활인가?' 등의 제목으로 내년 상반기에 출간할 예정이다. 문고판으로 구성해 읽기 쉽다. (민음인·각 권 6500~72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마병사는 왜 죽은 예수를 찔렀나

창

루이스 더 볼 지음



2000년 전, 로마병사 '통기누스'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살았다 죽었다는 확인 차 옆구리를 찔러본다. 죽음을 확인하고도 예수의 몸에 다시 한 번 상처를 입혔다. 그는 왜 예수를 찔렀던 걸까.

루이스 더 볼(Luis de Wohl)의 책 '창'(The Spear)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의 옆구리를 찔른 로마 병사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음모와 배신에 휘말려 골고다 언덕에서 참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른 병사의 이야기를 치밀한 묘사와 흥미진진한 전개로 풀어냈다.

이 때문에 이 책은 '벤허', '쿠오바디스', '섬의' 등과 함께 세계 4대 기독교 고전으로 전세계에 널리 읽혀지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정낙천 장로는 "이 책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지난 1990년 처음 출판됐던 책을 이번에 정식으로 재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 순복음교회 정원희 목사의 부친이기도 한 역자는 9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수 년동안 완전한 번역을 위한 작업을 벌여 최근 개정 번역판을 내게됐다.

한편, 저자 루이스 더 볼은 독일 태생으로 1935년 히틀러의 처하에서 벗어나 영국으로 귀화했다. 유럽과 아프리카 등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종교를 연구해 '창'을 집필했다. (키네마인북스·1만6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과학적으로 풀어본 '부의 양극화'

사회적 원자

마크 뷰캐넌 지음



과학전문지 '네이처', '뉴사이언티스트' 편집자를 지낸 물리학자 마크 뷰캐넌은 '사회적 원자'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에서부터 집단 행동의 수수께끼, 그리고 역사 변동까지 인간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사회 물리학(social physics)의 도전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하고 있다.

"사회를 하나의 물체로, 그리고 인간을 그 사회라는 물체를 이루는 원자로 이해하면 인간 세상 배후에 숨어 있는 패턴 또는 정밀한 수학적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음"을 역설하는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인종주의, 민족 학살,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 핵소문과 루머의 확산, 부의 불평등 같은 온갖 사회과학적 사례들을 사회에 대한 물리학적 이해로 깔끔하게 설명해낸다.

특히 부의 불평등이 정밀한 수학적법칙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할 수 있는 일종의 '자연현상'임을 설명하는 부분은 압권이다.

실제로 책에 소개되고 있는 사회 물리학적 연구 흐름은 세계 학계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통적인 경제학과 사회과학 연구를 대체하고 있다.

복잡한 사회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할 우려도 없지 않지만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사이언스북스·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GG경매 컨설팅(주) Real Estate Auction and Consultancy. Services include apartment, commercial, and land auctions. Contact: 010-9311-1907.

현대공인중개사 Modern Real Estate. Services include land, commercial, and residential property transactions. Contact: T. 062)371-1900.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Real Estate. Services include land and commercial property transactions. Contact: 011-609-5221.

금산공인중개사 Geum-san Real Estate. Services include land and commercial property transactions. Contact: T. 681-5666.

대인동상일부동산 Da-in Real Estate. Services include land and commercial property transactions. Contact: (FAX) 223-1772.